

## 임상시험 결과 – 일반 요약본

### 장의 하부에 염증이 발생하는 장기 질환인 “궤양대장염”을 앓고 있고 종양괴사인자 억제제로 치료받은 적 있는 환자에서 에트롤리주맙과 위약을 비교하는 시험

시험 제목 전문은 마지막 요약 부분을 참조하십시오.

#### 본 요약본에 관한 정보

이는 대중과 시험 참여자에 대해 작성된

- 임상시험(본 문서에서 “시험”으로 지칭)의
- 요약본입니다.

본 요약본은 작성 당시(2021년 10월) 알려진 정보에 근거합니다. 현재에는 더 많은 정보가 알려져 있을 수 있습니다.

시험은 2014년 3월에 시작되어 2020년 4월에 완료되었습니다. 본 요약본은 시험이 종료된 후에 작성되었습니다.

단일 시험만으로 약물의 위험성과 유익성을 모두 알 수는 없습니다. 알아야 할 모든 사항을 파악하려면 많은 시험에 다수의 인원이 필요합니다. 본 시험의 결과는 동일 약물로 진행된 다른 시험의 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

- 이는 본 요약본 하나만을 근거로 의사결정을 해서는 안 됨을 의미합니다 — 치료에 관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항상 담당 의사와 상의하십시오.

#### 요약본 내용

1. 본 시험에 대한 일반 정보
2. 본 시험에 누가 참여했나요?
3. 시험 중에 어떠한 일이 발생했나요?
4. 시험의 결과는 무엇이었나요?
5. 부작용은 무엇이었나요?
6. 본 시험이 연구에 어떻게 도움이 되었나요?
7. 다른 시험에 대한 계획이 있나요?
8. 더 많은 정보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 본 시험에 참여해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참여자들은 시험약과 장 하부에 염증이 발생하는 염증성 장 질환인 궤양대장염이라는 장기 질환에 관한 중요한 의문에 답할 수 있도록 연구자들에게 도움이 되었습니다.

## 본 시험에 대한 주요 정보

주요 방법	주요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본 시험은 “에트롤리주맙”이라는 시험약을 시험약과 똑같이 생겼으나 실제 약물을 함유하지 않은 위약과 비교하여 수행되었습니다. 시험에서는 1가지 이상의 중앙괴사인자(또는 약어로 TNF) 억제제 약물로 치료받은 후의 궤양대장염 환자를 살펴봤습니다.</li><li>● 본 시험에서 참여자는 에트롤리주맙 또는 위약을 투여받았습니다. 각 참여자가 어떤 치료를 받을지는 컴퓨터를 사용하여 우연에 의해 결정되었습니다.</li><li>● 본 시험에는 24개국에 소재한 609명의 참여자가 포함되었습니다.</li></ul>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주요 결과는 위약을 투여받은 참여자(10명 중 1명)보다 에트롤리주맙을 투여받은 더 많은 참여자(10명 중 2명)가 14주 치료 후 장염증 및 궤양대장염 증상의 감소를 보였다는 것입니다.</li><li>● 에트롤리주맙 투여 후 원래 염증과 증상이 개선된 참여자 중 에트롤리주맙 또는 위약을 투여받은 유사한 인원의 참여자(10명 중 약 2명)가 16개월 치료 후 염증과 증상의 개선을 보였습니다.</li><li>● 시험의 첫 번째 파트에서 에트롤리주맙을 투여받은 참여자의 1% 미만(100명 중 1명 미만)은 시험 의사가 치료와 관련 있는 것으로 간주한 중대한 부작용을 겪은 반면 위약을 투여받은 참여자 중 0%가 그러한 부작용을 겪었습니다.</li><li>● 시험의 두 번째 파트에서 장기 치료 후 궤양대장염 증상 및 염증이 감소한 참여자 수는 에트롤리주맙 투여자와 위약 투여자 간 유사했습니다.</li><li>● 본 요약문 작성 시점에, 시험이 종결되었습니다. 수집 중인 새로운 정보는 없습니다.</li></ul>

## 1. 본 시험에 대한 일반 정보

### 본 시험이 수행된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궤양대장염은 장의 하부에 염증이 발생하여 궤양이 형성되는 장기 질환입니다. 궤양대장염 환자는 종종 혈변을 동반한 설사, 위경련, 갑작스러운 배변감을 경험합니다. 이러한 통증성 및 쇠약성 증상은 수면, 사회 활동, 기타 일상 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궤양대장염에 이용 가능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치료제가 있습니다.

- 염증 완화제(“코르티코스테로이드”)
- 일반 면역계 활동 완화제(“면역억제제”)
- 궤양대장염을 초래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면역세포에만 영향을 미쳐 건강한 세포를 덜 손상시키는 약물(“표적 요법”)
- 궤양대장염 환자에서 이들 약물은 단기간 작용할 수 있으나 일부 환자의 경우에는 작용이 중단될 수 있어서 연구자들이 다른 방식으로 더 장기간 작용하는 새로운 약물들을 모색 중입니다.

본 시험에서는 기존 약물과는 다르게 신체 내 작용하는 에트롤리주맙을 연구했습니다. 시험 의사들은 에트롤리주맙이 궤양대장염 염증 및 증상의 완화에 효과적인지 확인하고자 했습니다. 또한 에트롤리주맙이 얼마나 안전한지 또한 확인하고자 했습니다.

### 시험약은 무엇인가요?

에트롤리주맙이라는 약물은 이 시험의 핵심이었습니다.

- “에트-로에-리즈-우-맙”이라고 읽을 수 있습니다.
- 에트롤리주맙은 항체라는 단백질의 한 유형입니다.  $\beta 7$ 이라는 두 번째 단백질에 부착하여 이를 차단함으로써 작용합니다. 이를 “베-타-세-븐”이라고 읽을 수 있습니다.
  - 이 약물은 염증성 세포가 장으로 이동하는 것을 막아 장에서의 염증 과정을 감소시킵니다.



- 에트롤리주맵은 피하 주사로 투여됩니다.

에트롤리주맵을 “위약”과 비교했습니다.

- 이를 “플라-시-보”라고 읽을 수 있습니다.
- 위약은 에트롤리주맵과 똑같이 생겼지만 어떠한 실제 약물도 함유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인체에 미치는 약물 관련 영향이 없었음을 의미합니다.
- 연구자들은 에트롤리주맵을 위약과 비교하여 해당 약물에 의해 실제로 초래되는 유익성 또는 부작용이 무엇인지 제시할 수 있었습니다.

본 시험의 목적상, 에트롤리주맵과 위약은 모두 “치료제”라고 부릅니다.

## 연구자들이 발견한 점은 무엇이었나요?

---

연구자들은 본 시험을 수행하여 시험약이 어떻게 잘 작용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에트롤리주맵을 위약과 비교했습니다(4항, “시험의 결과는 무엇이었나요? 참조).

이들은 또한 본 시험 중에 각 약물을 복용했을 때 얼마나 많은 참여자가 부작용을 보였는지 확인하여 약물이 얼마나 안전한지 알아보려고 했습니다(5항, “부작용은 무엇이었나요?” 참조).

**연구자들이 답을 구하고자 한 주요 의문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1. 얼마나 많은 참여자가 14주간 에트롤리주맵 또는 위약 투여 후 궤양대장염 염증 및 증상의 감소를 나타냈나요?
2. 얼마나 많은 참여자가 시험의 파트 2 중에 더 장기간 치료를 받은 후 궤양대장염 염증 및 증상의 감소를 나타냈나요?
3. 에트롤리주맵을 투여받은 참여자가 부작용을 나타냈나요? 그렇다면 어떤 부작용이었나요?

## 본 시험은 어떤 유형의 시험이었나요?

---

본 시험은 “제3상” 시험이었습니다. 이는 본 시험 전에 궤양대장염이 있는 더 소수의 환자(“제2상” 시험이라고 지칭)에서 에트롤리주맵을 시험했음을 의미합니다. 본 제3상 시험에서는 더 많은 인원의 궤양대장염 환자가 에트롤리주맵 또는 위약을 투여받았습니다. 이는 에트롤리주맵의 부작용과 에트롤리주맵이 단기 또는 장기 투여 후 염증 및 증상을 감소시켰는지 여부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시험은 “무작위배정” 시험이었습니다. 이는 동전 던지기 같은 우연으로 시험 참여자가 에트롤리주맙 또는 위약을 투여받을지 여부가 결정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는 컴퓨터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본 시험은 “이중 눈가림” 시험이었습니다. 이는 시험 참여자와 시험 의사 모두, 누가 에트롤리주맙 또는 위약을 투여받을지 알지 못했음을 의미합니다. 시험이 “눈가림”되면, 참여자는 자신이 어떤 치료제를 투여 중인지, 그리고 어떤 치료 효과가 기대되는지 알지 못합니다.

## 시험은 언제 어디서 수행되었나요?

시험은 2014년 3월에 시작되어 2020년 4월에 완료되었습니다. 본 요약본은 시험이 종료된 후에 작성되었습니다.

시험은 아프리카, 아시아, 유럽, 중동,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의 24개국에 소재한 184개소 시험기관에서 수행되었습니다. 다음 지도에는 본 시험이 수행된 국가들이 나와 있습니다.

- 아르헨티나
- 호주
- 오스트리아
- 벨기에
- 브라질
- 캐나다
- 체코 공화국
- 덴마크
- 프랑스
- 독일
- 그리스
- 헝가리
- 이스라엘
- 이탈리아
- 대한민국
- 리투아니아
- 멕시코
- 네덜란드
- 폴란드
- 루마니아
- 스페인
- 스위스
- 영국
- 미국



## 2. 본 시험에 누가 참여했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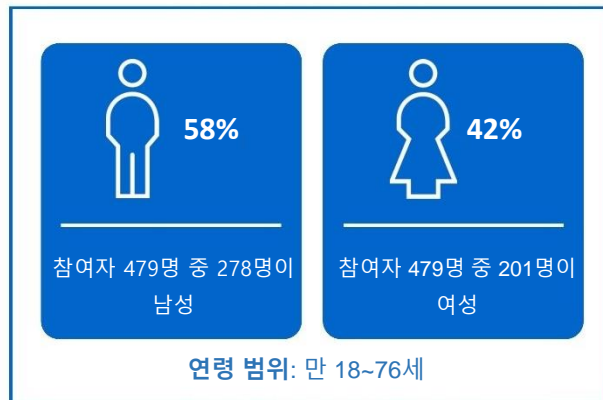
본 시험은 2개 파트로 구성되었습니다(3항, “시험 중에 어떠한 일이 발생했나요?” 참조).

첫 번째 파트에서 궤양대장염 환자는 2개 군으로 나뉘었습니다.

- 1군은 궤양대장염 환자 130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모든 환자들은 자신이 에트롤리주맙을 투여받는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 2군은 눈가림된 환자 479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이는 환자들이 자신이 에트롤리주맙을 투여받는지 아니면 위약을 투여받는지 알지 못했음을 의미합니다.

여기 보고된 결과는 2군에 주안점을 둔 것입니다.

시험 참여자는 만 18~76세였습니다. 479명 중 278명(58%)이 남성이었고 479명 중 201명(42%)이 여성이었습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시험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 만 18~80세
- 시험 시작 전 3개월 이내에 중등증 내지 중증 궤양대장염을 진단 받음
- 시험 시작 전 5년 이내에 항TNF 약물을 투여 받음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시험에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 장의 두 부위 간 과거 또는 현재의 비정상 연결(누공이라 지칭) 또는 복부의 통증성 고름(농양이라 지칭), 암성으로 보이는 장 용종(장 점막 형성이상), 또는 협소한 대장, 또는 HIV, B형 또는 C형 간염, 또는 결핵 같은 염증 등, 특정 위 및 장 문제 과거력(잠재적 안전성 문제를 피하기 위함)
- 코르티코스테로이드 관장제 또는 좌약, 5-아미노살리실레이트 직장 제제, 항인테그린 요법(베돌리주맙 또는 나탈리주맙 포함) 또는 항부착 분자 요법과 같은 특정 약물을 이전에 복용함
- 암을 제거하기 위해 대장 일부를 제거하는 수술(대장 절제 또는 대장절제술) 또는 복부벽을 통한 장 부위 우회 수술(회장조루술 또는 결장조루술)을 포함하여 궤양대장염 또는 다른 위 또는 장 문제를 치료하기 위한 수술.

### 3. 시험 중에 어떠한 일이 발생했나요?

시험 기간 동안, 참여자는 우연에 의해 두 가지 치료제 중 하나를 투여받도록 선정되었습니다. 치료제는 컴퓨터에 의해 무작위로 선정되었습니다. 참여자는 시험기관에서 치료제를 투여받았습니다.

투여군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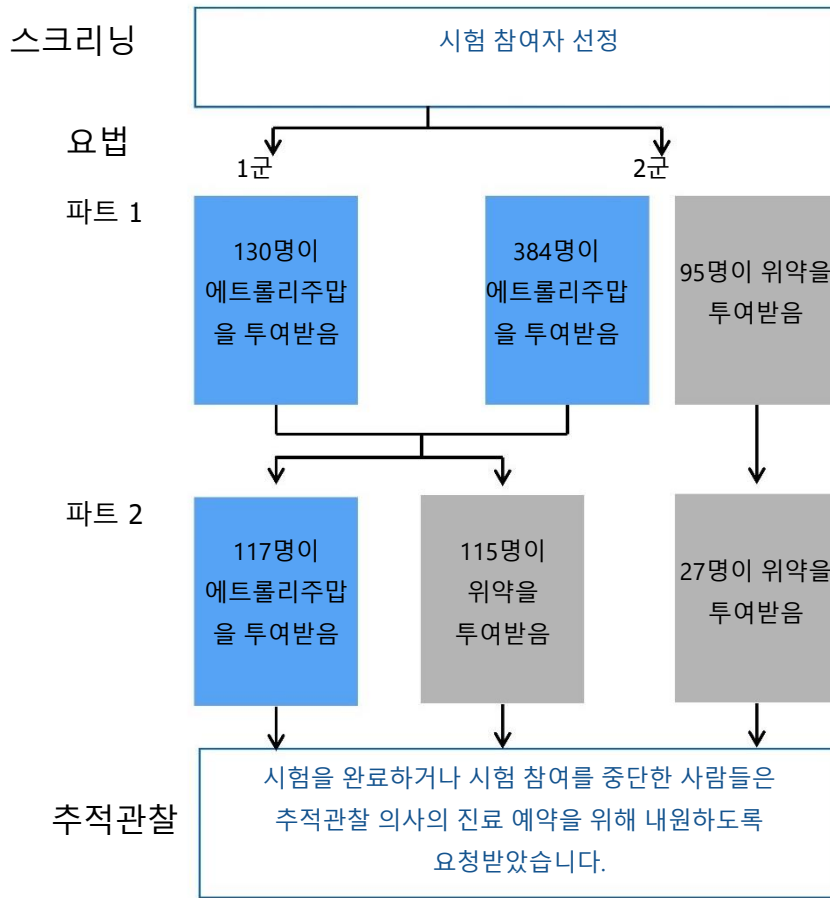
- **에트롤리주맙(시험약)군:** 4주마다 1회 105밀리그램 피하 주사
- **위약군:** 4주마다 피하 주사.

본 시험은 두 파트로 나뉘었습니다.

- **파트 1: 약 3개월(14주)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 참여자는 에트롤리주맙을 투여받았습니다(시험군 1)
  - 참여자는 에트롤리주맙 또는 위약을 투여받았습니다(시험군 2).
- **파트 2: 약 12개월(52주)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 에트롤리주맙을 투여받고 파트 1 종료 시까지 염증과 증상이 감소한 1군과 2군의 참여자는 시험의 파트 2에서 에트롤리주맙 또는 위약을 투여받았습니다.
  - 위약을 투여받고 파트 1 종료 시까지 염증과 증상이 감소한 2군의 참여자는 시험의 파트 2에서 위약을 투여받았습니다.

시험이 완료되면 참여자는 시험기관으로 돌아가 공개 시험이라고 부르는 또 다른 시험으로 이관되어 에트롤리주맙 투여를 지속하거나 추적관찰 방문을 이행하여

전반적 건강을 확인했습니다. 시험에서 발생하는 일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를 알아보려면 아래를 참조하십시오.



#### 4. 시험의 결과는 무엇이었나요?

##### 질의 1: 얼마나 많은 참여자가 14주간 에트롤리주맙 또는 위약 투여 후 궤양대장염 염증 및 증상의 감소를 나타냈나요?

임상시험의 첫 번째 파트에서 연구자들은 치료 시작 후(요법 시작 후 약 3개월) 궤양대장염 염증 및 증상이 얼마나 유의하게 감소했는지 살펴봤습니다. 에트롤리주맙을 투여받은 10명 중 약 2명(19%)이 치료 시작 후 증상이 유의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위약을 투여받은 10명 중 1명 미만(6%)과 비교됩니다.

**시험의 첫 번째 파트에서 에트롤리주맙을 투여받은 더 많은 참여자가 위약을 투여받은 참여자에 비해 염증이 적었고 증상이 호전되었습니다.**



## 질의 2: 얼마나 많은 참여자가 시험의 파트 2 중에 더 장기간 치료를 받은 후 궤양대장염 염증 및 증상의 감소를 나타냈나요?

시험의 두 번째 파트에서 연구자들은 16개월의 에트롤리주맙 투여 후 얼마나 많은 참여자가 궤양대장염 염증 및 증상의 감소를 나타냈는지 또한 살펴봤습니다. 본 시험의 첫 번째 파트에서 에트롤리주맙을 투여받았고 증상이 호전된 참여자가 에트롤리주맙 또는 위약에 무작위배정되었습니다. 이 시험의 두 파트 모두에서 에트롤리주맙을 투여받은 10명 중 약 2명(24%)에서 궤양대장염 염증 및 증상이 더 장기간의 치료 후에 감소했습니다. 이는 시험의 첫 번째 파트에서 에트롤리주맙을 투여받고 두 번째 파트에서 위약을 투여받은 10명 중 2명(20%)과 비교됩니다.

**시험의 두 번째 파트에서 장기 치료 후 궤양대장염 증상 및 염증이 감소한  
참여자는 에트롤리주맙 또는 위약 투여자 간 유사했습니다.**

## 5. 부작용은 무엇이었나요?

부작용(“이상반응”이라고도 함)은 시험 중에 발생하는 바람직하지 않은 의학적 문제(두통 등)입니다.

- 시험 의사가 시험 치료제와 관련 있다고 판단한 부작용만 아래에 기술되어 있습니다.

중대하고 흔한 부작용은 다음 항들에 열거되어 있습니다.

### 시험 의사가 치료제와 관련 있다고 판단한 중대한 부작용

부작용은 생명을 위협하거나, 입원 치료가 필요하거나, 지속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 “중대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본 시험의 첫 번째 파트 동안, 위약을 투여받은 100명 중 0명(0%)에 비해 에트롤리주맙을 투여받은 2군의 100명 중 1명 미만(1% 미만)이 최소 1가지 중대한 부작용을 겪었습니다. 에트롤리주맙을 투여받은 참여자에서 유일한 중대한 부작용은 입술 부종과 상세불명 바이러스 감염이었습니다.

시험의 첫 번째 파트 동안, 일부 참여자는 시험 의사가 시험 치료제와 관련 있다고 판단한 부작용 때문에 약물 복용을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 에트롤리주맙군에서, 2군의 100명 중 1명 미만(1% 미만)이 관련 부작용으로 인해 에트롤리주맙 투여를 중단했습니다.
- 위약군에서는 관련 부작용으로 인해 치료제 투여를 중단한 2군 참여자가 없었습니다.

본 시험의 두 번째 파트 동안, 시험의 두 파트 모두에서 에트롤리주맙을 투여받은 100명 중 1명 미만(1% 미만)이 중대한 부작용을 경험했습니다. 중대한 부작용은 폐렴이었습니다.

시험의 첫 번째 파트에서 에트롤리주맙을 투여받고 두 번째 파트에서 위약을 투여받은 참여자의 경우, 100명 중 약 3명(3%)이 중대한 부작용을 겪었습니다. 이러한 부작용은 거대세포바이러스, 폐렴, 다리 또는 손의 부종으로 알려진 바이러스 감염인 *클로스트리듐 디피실리균*이라는 세균성위장 감염이었습니다.

이 시험의 두 파트 모두에서 위약을 투여받은 참여자 중 중대한 부작용을 겪은 참여자는 없었습니다.

시험의 두 번째 파트 동안, 일부 참여자는 시험 의사가 시험 치료제와 관련 있다고 판단한 부작용 때문에 약물 복용을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 시험의 두 파트 모두에서 에트롤리주맙을 투여받은 참여자의 경우, 100명 중 1명 미만(1% 미만)이 관련 부작용으로 인해 에트롤리주맙 투여를 중단했습니다.
- 시험의 첫 번째 파트에서 에트롤리주맙을 투여받고 두 번째 파트에서 위약을 투여받은 참여자의 경우, 관련 부작용으로 인해 치료제 투여를 중단한 참여자는 없었습니다.
- 시험의 두 파트 모두에서 위약을 투여받은 참여자의 경우, 27명 중 1명(4%)이 관련 부작용으로 인해 치료제 투여를 중단했습니다.

### 시험 의사가 치료제와 관련 있다고 판단한 가장 흔한 부작용

본 시험의 첫 번째 파트에서, 위약을 투여받은 참여자 100명 중 약 16명(16%)에 비해 2군에서 에트롤리주맙을 투여받은 모든 참여자 100명 중 약 15명(15%)이 중대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은 부작용을 겪었습니다.

2군에서 에트롤리주맙을 투여받은 참여자의 경우, 가장 흔한 부작용은 두통, 어지러움, 관절 통증, 주사부위 발적, 피부 가려움, 오심이었습니다. 2군에서 위약을 투여받은 참여자의 경우, 가장 흔한 부작용은 주사부위 발적 및 두통이었습니다.

본 시험의 두 번째 파트에서, 시험의 두 파트 모두에서 에트롤리주맙을 투여받은 모든 참여자 100명 중 약 21명(21%)이 중대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은 최소 1가지 부작용을 겪었습니다. 이 시험군에서 가장 흔한 부작용은 주사부위 발적 및 발진이었습니다.

시험의 첫 번째 파트에서 에트롤리주맙을 투여받고 두 번째 파트에서 위약을 투여받은 참여자의 경우, 100명 중 약 19명(19%)이 중대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은 최소 1가지 부작용을 겪었습니다. 이 시험군에서 가장 흔한 부작용은 피부 가려움, 심장 문제와 무관한 흉통, 주사부위 발적, 감기, 두통이었습니다.

시험의 두 파트 모두에서 위약을 투여받은 참여자의 경우, 100명 중 약 22명(22%)이 중대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은 최소 1가지 부작용을 겪었습니다. 이 시험군에서 가장 흔한 부작용은 두통 및 주사부위 발진이었습니다.

## 기타 부작용

이 요약본의 마지막에 명시된 웹사이트에서 기타 부작용(상기 항에는 명시되지 않았으나 의사가 에트롤리주맙과 관련 있다고 간주하지 않은 부작용)에 관한 정보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 8항(“더 많은 정보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을 참조하십시오.

## 6. 본 시험이 연구에 어떻게 도움이 되었나요?

여기에 제시된 정보는 궤양대장염 환자 609명을 대상으로 한 단일 시험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러한 결과는 궤양대장염과 에트롤리주맙에 대해 연구자들이 더 많은 것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단일 시험만으로 약물의 위험성과 유익성을 모두 알 수는 없습니다. 알아야 할 모든 사항을 파악하려면 많은 시험에 다수의 인원이 필요합니다. 본 시험의 결과는 동일 약물로 진행된 다른 시험의 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이는 본 요약본 하나만을 근거로 의사결정을 해서는 안 됨을 의미합니다 — 치료에 관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항상 담당 의사와 상의하십시오.

## 7. 다른 시험에 대한 계획이 있나요?

본 요약본 작성 시점에 시험이 완료되었으며 추가 정보는 수집되지 않습니다. 본 시험의 주요 결과는 위약을 투여받은 참여자(10명 중 1명)보다 에트롤리주맙을 투여받은 더 많은 참여자(10명 중 2명)가 14주 치료 후 장 염증 및 증상의 감소를

보였다는 것입니다. 에트롤리주맙 투여 후 원래 염증과 증상이 개선된 참여자 중 에트롤리주맙 또는 위약을 투여받은 유사한 인원의 참여자(10명 중 약 2명)가 16개월 치료 후 염증과 증상의 개선을 보였습니다.

TNF 억제제(인플릭시맙 등)를 투여받은 적 없는 궤양대장염 환자에서 에트롤리주맙의 안전성과 효과를 알아보는 그 외 제3상 시험들이 수행되었습니다.

현재, 연구자들은 크론병이 있는 성인을 대상으로 에트롤리주맙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 8. 더 많은 정보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본 시험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아래 나와 있는 웹사이트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 <https://clinicaltrials.gov/ct2/show/results/NCT02100696>
- <https://www.clinicaltrialsregister.eu/ctr-search/trial/2013-004278-88/results>
- <https://forpatients.roche.com/en/trials/autoimmune-disorder/ulcerative-colitis/a-study-of-the-efficacy-and-safety-of-etrolizumab-in-ulcerative-.html>.

### 본 시험에 대한 질문이 있으면 누구에게 연락해야 하나요?

본 요약본을 읽은 후 추가 질문이 있는 경우:

- 환자 플랫폼을 방문하여 연락처 양식을 작성합니다.  
<https://forpatients.roche.com/en/trials/autoimmune-disorder/ulcerative-colitis/a-study-of-the-efficacy-and-safety-of-etrolizumab-in-ulcerative-.html>
- 현지 Roche 사무소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십시오.

본 시험에 참여했고 그 결과에 대한 질문이 있는 경우:

- 시험 병원이나 진료소에서 시험 의사 또는 직원과 상의하십시오.

본인의 치료에 관해 질문이 있는 경우:

- 치료 담당 의사와 상의하십시오.

### 본 시험을 누가 조직하고 지불하나요?

본 시험은 스위스 바젤에 본사를 둔 F. Hoffmann-La Roche Ltd.가 조직하여 지불하였습니다.

## 시험의 전체 제목 및 기타 식별 정보

---

본 시험의 전체 제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전에 종양괴사인자(TNF) 억제제에 노출된  
궤양대장염이 있는 참여자를 대상으로 한 에트롤리주맙의 유효성과 안전성에 대한  
시험”

시험은 “HICKORY”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 본 시험의 임상시험계획서 번호: GA28950
- 본 시험의 ClinicalTrials.gov 식별자: NCT02100696.
- 본 시험의 EudraCT 번호: 2013-004278-88